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전 (3부) 10시
오전 (4부) 12시
금요일전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에배 7시30분
수요일에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7월 7일 (제697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주일에배 워싱턴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칼럼

인생의 내비게이션

요즘은 모르는 길을 갈 때 거의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길을 찾는다. 나는 인생길을 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한 치 앞을 모르는 길을 헤매지 않고 찾아갈 수 있다. 그러면 삶의 내비게이션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 (시119:105).

모르는 인생길을 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해도 목적지를 정하지 않으면 데려다 줄 수 없다. 무엇이 될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일러해야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로 인도한다. ‘예루살렘 성 재건’이라는 목적지를 찍었을 때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인도한 것처럼, ‘민족구원’이라고 친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인도한 것처럼, 곧 소원을 아뢰고 목적한 바를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그 분이 만민과 만물을 들어 목적지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비게이션의 장점 중 하나는 실시간 상황을 알려주어 가장 빠른 길, 가장 막히지 않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즉 상황과 정보를 알게 한다. 하나님은 이 상 중에, 꿈에, 환상을 통해 최적의 코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요셉의 길을 인도하시라 안전하게 하였고, 동방 박사에게도 길을 제시하신 것처럼.

또한 내비게이션은 흑 길을 잘못 들어도 끝까지 목적지로 인도한다. 하나님도 우리가 흑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나무라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인생의 목적지까지 편하고 안전하고 빨리 가고 싶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라. 아니면 열흘이면 갈 길 40년 걸린다.

썩은 뿌리는 잘라내야 한다

멕시코(Mexico) 동부, 대서양 멕시코 만(灣) 연안의 뜨거운 열기는 가히 살인적이었다. 한낮 최고기온이 섭씨 45도를 넘나들 만큼 대지는 뜨겁게 달구어져 야외활동은 생각지도 못할 판이다.

그런데 이 더위보다 더 우리를 괴롭힌 것이 있으니 바로 벼룩이었다. 옷을 풀고 물어대는 모기도 모기지만, 이 벼룩은 보이지도 않고 침대 매트리스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자는 동안 팔과 다리를 시뻘겋게 물어댔다. 아침이면 서로 팔다리를 들어 보이며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한편 안

개기 위해 젖 먹던 힘까지 쏘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에 더하여 목사님은 더위를 먹은 데다 별레에 물리고, 두통, 복통, 설사까지 설상가상의 어려움 속에 집회를 인도하셔야 했다.

그러나 마쿠스파나(Macuspana)의 베네치아(Venice) 목사는 답했다. 지난 과테말라(Guatemala) 집회를 소개했던 그는 선교에 대한 진지하고도 열정적인 자세로 우리를 감동시켰던 인물이다.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이미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주지사를 움직여 경호, 차량, 영접 등 모든 지원을 끌어내

6개월이 되었지만 그에게는 고민이 많았다. 출입기자들은 부패한 관리들을 정리해야한다고 거듭 조언했지만 결단을 못하고 괴로워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목사님은 주지사와 회동한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지사님은 이 타바스코 주라는 나무를 지탱하는 곧은 뿌리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를 성장 발전시키는 것은 그 곧은 뿌리에 붙어있는 잔뿌리, 곧 당신의 참모들입니다. 그런데 잔뿌리가 썩었나? 그러면 이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썩은 뿌리는 잘라내야



멕시코 타바스코주 마쿠스파나(Macuspana) 집회

쓰럽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 땅에 온 본래 목적만 달성된다면, 그런 것들은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집회를 배설한 이가 정말 그 집회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두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지 않는다. 이조차 목사님만 모시면 될 것이라 안일한 태도는 결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 알바라도(Alvarado)의 앙헬(Angel) 목사는 낚시하며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는 그야말로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었다. 모세(Moise) 목사의 소개로 집회를 열었지만 도무지 그런 감금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어려움이 목사님께로 돌아온다. 그 열아불은 심령들

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한 날은 월요일이라 모든 골짜기가 쉬는 날임에도 그는 주지사를 통해 특별히 목사님이 운동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놓았다. 주지사 비서실에서 나온 관리들이 카트를 10여대에 나누어 타고 목사님을 따르는 모습이 가히 장관이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심신이 잔뜩 지쳐있는 목사님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이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종을 쓰시려니 또 이런 배려를 하셨구나!”하고 기뻐하셨다.

이튿날 오전 주지사 공관을 방문하였다. 히메네스(Arturo Nunez Gimenez, 65세) 타바스코(Tabasco) 주지사는 42년의 정치경력에 2선의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지낸 노련한 정치가였다. 그는 취임한지

합이다. 아차피 썩은 것은 썰개기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히메네스 주지사는 목사님의 조언에 큰 힘을 얻고 그동안 고민하던 문제들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고 후에 종교담당비서가 집회 장소에 찾아와 전했다. 목사님을 만나 6개월간의 체증이 다 사라졌다며 크게 기뻐하던란다. 그는 백성을 교육하여 잘 살게 하는 게 소망이라며 한국을 방문하여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목사님은 ‘나와 철학이 같다’며 이 나라가 살 길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달려 있음을 거듭 강조하셨다. 목사님은 주지사와 작별하며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

(다음주에 계속)
한은택전도사



소경이 눈을 뜨고크게기뻐하고 있다



타바스코주 히메네스 주지사와의 회동



더러운 귀신이 드러나 소리를 지르며운동한다



주님이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삶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3:6~31)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시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수산 궁에 있던 유대인입니다. 후에 그는 예루살렘 총독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성벽이 훼손되고 성물들이 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너무 마음이 아파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 사실을 고하고, 왕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 성곽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그 과정과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읽다보면 느헤미야가 일을 진행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곳곳에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저를 크게 감동시켰기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고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에스라와 함께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왕의 재가를 얻어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있었습니니다. 제사장 엘리아십이 이스라엘의 대적 도비아에게 성전의 큰 방을 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물론, 레위인들에게는 월급을 주지 않아 그들이 각처로 도망했으며, 안식일도 법하고 이방여자와 결혼하는 등 그야말로 문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에서 난 혼혈족인 암몬과 모압 사람을 분리시켰고, 암몬 사람과 도비야를 성전에서 추방했으며, 성전에서 주는 월급을 조정했고, 안식일을 엄수시켰으며, 잡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나

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눅5:19)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너무 당당하고 멋집니다. 하나님이 기억해주시는 삶을 산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느헤미야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재위 14년이 되었을 때, 밖으로는 산헤립이 침공했고, 자신은 죽을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사38:1)고 통고합니다. 베타 끝에

선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자 얼굴을 벽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사38:3). 이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가 궁궐을 나가기도 전에 마음을 돌이키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 오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사38:5-6)고 약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해 그림자가 뒤로 십도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당당히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룰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는 즉위하자 곧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산당을 비롯한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왕하18:1-7). 그는 아하스에 의해 닫혀 있던 성전의 문을 열고 이것을 수리했고, 또 유월절을 부활시켰습니다. 또 그는 모세의 못뱀이 우상 예배의 대상이 되어 있음을 알고 그것도 제거했습니다. 그런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당당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 선히 행한 자신을 추억해달라고. 그는 자신의 공적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행하였음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아뢰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물겠습니다. 당신도 이런 당당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추억하면 흐뭇해하실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되레 하나님이 지난 일을 기억하실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해 전인가, 저를 위해 주일마다 밥을 해



주는 권사가 중환자실에 심장병으로 쓰러져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침 그때 저는 지방 집회에 가는 중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먼저 그곳에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그 권사에게 안수하며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 딸이 종을 위해 수고한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꼭 살려주세요아만 합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딸을 살리셔서 지금도 저에게 밥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고별료의 구제와 그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행10:4), 과부 두렘돈을 보신 하나님(눅21:2),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른 여인을 기억하신 하나님(마26:13)은 우리도 다 보고 계시고,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게 있어야지요? 뭐 내롭게 있어야지요? 돌아보니 겉음마다 죄뿐이니 말입니다. 걱정되십니까? 두렵고 부끄

럽습니까? 그러나 염려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멋지고 감사한 이유는 안 좋은 과거, 나쁜 과거, 죄로 얼룩진 과거는 다 잊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사43:18).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눈

평소에 부지런히 자축해야 어려울때 찾아볼 수 있다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역죄인 사울이 대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딤후1:12-13). 그러기에 저 또한 죄인 중의 과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의 행한 선한 일을 잊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을 술 맡은 관장이 잊은 것처럼(창40:23), 왕 암살을 막은 모르드개에 잊은 것처럼(에2:21-22).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일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아무런 자축이 없으면 위급할 때 찾을 것이 없는 것처럼,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놓지 않으면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고, 기뻐하며, 최선을 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당신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부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 같이 그들의 자녀가 효자였고, 모범생이었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그들이라고 그 그랬겠습니까만, 메달을 따고 나니 가정에의 안 좋은 일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추억하실 수 있는 일을 하면, 지금부터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살면,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는 잊으시고 지금의 일만 추억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함이고 당당함은 믿음의 행위이다

님께 드린 기도가 바로 30~31절,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입니다. 무슨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보셨지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일을 한 나를 아껴보시고, 복과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합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12년 동안 머무는 동안 민폐는 고사하고 총독의 녹까지 받지 않았으며, 자비로 유대인 150인을 먹이고, 또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등 정열적이며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업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나의 사업이야기이다.

첫 시작을 학습클리닉으로 시작했던 사업은 곧 파경을 맞았다.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16:9)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계획대로 일은 진행되지 못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밤잠 안자며 연구에 몰두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직접 과외식의 학습코칭까지 손수 도맡았고 그 일에 매력을 느끼려고 애를 썼을 때였다. 그러나 남편에게 감동을 주신 것은 다름 아닌 자폐아에 대한 비전이었다. 직장은 서울인데 집은 강원도 원주에서 그 먼 길을 오가며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며 오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던 남편은, 나에게 고백하기를 “요즘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서 우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자폐아이란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감동이었다. 되돌아보니, 점점 학습을 위한 아이들의 방문은 끊어지고 자폐아들의 방문이 간간히 있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자폐아이란 발을 수도 없었다. 그 당시에 보증을 거의 다 까먹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급한 경제난에 직면해있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경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오니 갈 길을 알려주세요. 무엇보다 해야 할까요?” 하고 묻기 시작했다. 그러곤 나는 기도했으니 이제 이루실 분은 주님이라고 생각했다. 그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맡기지 못한 기도이다. 지인 중 한 분은 “나는 기도를 분명 열심히 했어. 근데 사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기도할 의욕이 사라져.”라고 말했다. 나는 그 분의 이야기에 유념하며 기도해놓고 도마처럼 의심하지는 않는지 늘 점검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리고 아주 깨끗이 하나님께 바통을 넘겨버리고 만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부부는 자폐와 발달장애 그리고 정신분열증 아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한낱 피조물이 싫다고 부정해도 결국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치료에 회의가 드는 딱 한 가지가 바로 장애아동의 언어문제였다. 무슨 수를 써도 어찌 이리 언어치료가 힘이 드는지...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는 그 말씀에 힘입어 기도하는 중에 어떤 언어치료 기관을 가도 언어가 나올 기미가 안 보였던 아이들이 줄줄이 언어가 터지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변함이 없는 것이 이로써 증명되었다. 그 분의 경영방침만 따라가면 사는 길이 열린다.

김영숙

djaakdnflwak@naver.com

자극심을 갖자

지난 26일 JC 아카데미에서는 이시대 목사님의 에스터 강해가 이어졌다.

“바사(페르시아) 왕국 아하수에로 왕 시대, 왕이 부른 잔치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이후 유대인 에스터가 왕후의 자리에 오릅니다. 당시 왕의 총애를 받던 국무총리 하만은 모르드개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개를 비롯한 전 유대인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이때 에스터는 모르드개의 말을 듣고 3일간 금식을 한 후,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옵니다. 에스터와 전 유대인의 금식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팔미암아 에스터는 왕의 마음을 얻고, 하만의 계략은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개를 매달기 위해 준비해 놓은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그가 누웠던 모든 영광은 모르드개에게 대신 주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점은 와스디 왕후와 하만은 결국 ‘교만’ 때문에

누리터 영광과 존귀를 다른 이들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므로(벧전5:5), 우리는 형통할 때에도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안에 은혜와 축복의 샘이 흘러 넘칩니다. 또한 유대인을 죽이려는 왕의 명령이 담긴 조서를 취소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쥐고 있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발한 삼아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여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날마다 힘쓰자.

이국진 기자

joyful_jina@hanmail.net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두말상15:22)



::신앙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귀를 기울이세요

가루와 누룩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잘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보잘 것 없는 문명에 상대적인 열등감으로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생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지도 모른다. 상대적 빈곤감은 사람에 따라 깊은 상처가 되어 곱지 않은 시선이 되기도 하고, 뼈죽이는 입술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론 화합과 사랑을 이뤄내는 두 가지 부류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드시는 사람을 골라 행기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비취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불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성경에는 누룩에 대한 말씀이 28번 나온다. 그 중 마태복음 13장 33절과 누가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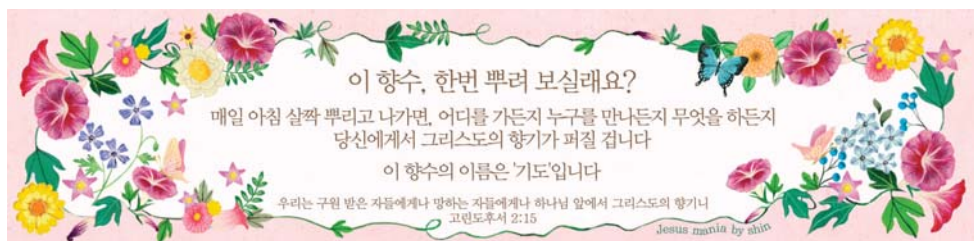
음 13장 21절의 누룩은 ‘변장’, ‘변역’, ‘확대’, ‘완전무결함’을 의미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서 말이나 되는 가루에 한 줌의 누룩은 지극히 적은 수량이지만 많은 가루 속에 한 줌 누룩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변모의 역사를 이뤄낸다. 다량의 가루 속에 소량의 누룩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이다. 그 소량의 누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유도하시며 다량의 가루들로 하여금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역인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성경 외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 중에서 주님은 사랑이 가득한 가슴으로, 병들고 가난하고 억울함과 슬픔에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린 자들

에게 구원에 이르는 비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것이다. 이런 자식들을 거느린 젊은 과부의 빈 항아리에 가루를 채워주셨을 것이다. 이런저런 주님의 행적을 상상하고, 그 행적들이 전개되는 화면을 떠올리며 내 자신이 병자가 되고, 내 자신이 가여운 과부가 되고, 내 자신이 억울한 슬픔에 빠진 자가 되어 주님을 만나 하소연하고, 비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드라마적 상상에 빠질 때도 있다.

확장시절 닮고 싶었던 아름다운 선배가 내 거울이 되었듯, 주님은 우리가 닮아야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거울이다. 우리는 그 분께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그것은 한 줌의 누룩이 되는 것이다. 나는 가루인가? 누룩인가?

이수연



지난 2009년, 영국의 한 인본주의 협회는 런던 시내버스에 무신론을 옹호하는 광고를 게재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 광고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였습니다. 이 협회는 당초 광고에 필요한 자금 5천 5백 파운드만 모금할 계획이었는데, 이 광고 취지에 공감하는 저명한 무신론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의 참여가 몰려면서 필요한 자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돈이 모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가 영국 전역에 운행되는 800대의 버스로 그 규모가 커졌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광고가 서울 시내버스의 일부 노선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열굴과 함께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는 그의 발언이 광고에 끼여있습니다. 이 광고는 당시의 반기독교적인 경향과 맞물려 대중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에 더욱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편안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대중들을 선회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까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죽은 뒤에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들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상의 논리와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맙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재식 전도사

blessedmc@naver.com

::내가 매일 기본개::

백조의 노력

얼마 전, 영화 시사회가 있었다. 영화 상영 3시간 전부터 극장 앞의 사람들은 북적거렸다. 스타와 배우, 그들의 매니저와 경호원들, 그리고 스타들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극장 앞은 북새통을 이루었다. 사람들에게 티켓을 나눠주기 위해 나는 뒷자리에 몰려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타와 배우들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 목을 길게 빼고 줄을 지어 서 있었다. 배우들이 나타날 때마다 천장이 떠나갈 정도로 큰 환호성이 울렸고 번갯불 같은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타나 배우들을 보면 그들의 외모에 반하고, 그들의 옷과 소품에 관심을 갖는다. 그들이 착용했던 옷과 신발, 가방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탄력 있는 몸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 그리고 화려한 그들의 모습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다 못해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시사회장에서 꽃처럼 아름다운 스타들과 그들을 보며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

면서 생각이 깊어졌다. 저들이 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을까? 물 한모금도 허투루 먹지 않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채소와 닭 가슴살만 먹으며 하루에 삼분의 일 이상을 운동에 투자하는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눈부신 외모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추위와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저 레드카펫을 밟고 포토존에 서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많은 역할을 위해 춤, 무술, 각종 운동을 배우고, 역할에 맞게 몸살을 찌우거나 빼고, 네다섯 시간이 넘는 분장 시간을 묵묵히 견디는 등, 말로 형용하기 힘든 지루한 시간들을 인내하는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플래시 세례를 받는 배우들을 보면서 호숫가의 백조가 떠올랐다. 백조는 잔잔한 호수 위를 우아하고 품격 있는 자태로 떠다니지만, 물 밑에서는 끊임없이 갈퀴질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백조의 갈퀴질 처

럼, 눈부신 스타와 배우들도 그렇게 끊임 없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초심을 잃어 이스라엘을 두 동강나게 한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솔로몬이 수많은 왕들이 누렸던 것보다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의 왕이라는 수식어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일천 번째 때문이었다. 여호와를 사모했던 솔로몬이 진정으로 행했던 일천 번째의 노력. 그의 진정성 담긴 노력이 있었기에 그는 전에도 후에도 없을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이다(왕상3:3-15).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호수위의 백조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배우들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일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처럼, 우리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우리의 노력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과 영광으로 응답해주실 것이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Good News

나라마다 건국신화나 그들의 시조(始祖)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곰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마늘과 쑥을 먹고 인간이 되어 낳은 아들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창건한 단군왕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라의 박혁거세는 박속에서 나왔고, 김알지는 큰 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에도 물에 떠내려 온 복숭아 속에서 어린 아이가 나왔다는가, 개미굴 속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 나와서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창세기에는 우리 인간의 시조와 나라와 민족의 기

원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에게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통치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권세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쌍한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 하였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는 1,600여 년간 4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기록한 성경 속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의 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잠들듯이 밤사에 잘리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Edu Section::

한 우물을 파는 옹고집 정신

우리 주위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배울 점이 참 많다. 먼저는 그들의 성실함이다. 두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바로 인내와 노력의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한 우물을 파는 옹고집 정신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 받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가장 큰 이유는 오랜 시간동안 한 우물을 파며 자신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고집스레 깨 갈길만 걸어온 그들의 옹고집 정신이 바로 성공한 인생의 비결인 셈이다. 박사들이 박사라는 칭함을 받고 인정을 받는 까닭은 각자의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쫓아라 연구하고 분석하고 갈고 닦으며 학문에 매진했기 때문이다. 장인(匠人)이라 존중받는 그들 또한 각자의 분야에서 오랜 시간을 투자하며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들

의 끈기와 열정, 인내와 노력이 그들의 삶을 성공한 삶으로 인도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 험하고 복잡한 세상이 두려워 울타리를 높게 두른 채로 과보호 속에서 살고 있던 않은지? 부모들의 지나친 보호로 인해 우물 안 개구리 같은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인내와 끈기는 부족해지기 쉽다. 부모들의 지나친 관심과 보호는 자녀들의 간절함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약하고 쉽게 포기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우물 파기'를 할 수 있는 열정과 노력이다. 무언가를 향한 강렬한 열망과 열정이 자녀들을 움직이게 하고, 자녀들의 인내심과 끈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 미래의 희망이 무엇이나 물어보면, 심중할수록 잘 모르겠다는 반응들로 일관하는 자녀들에게 자신 있는 것이 무언지를 찾게 한 다

음, 그 분야에 자녀가 가진 열정을 다하여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얼마 전 대한민국 영화계의 거장으로 자리 매김한 어느 영화감독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분 말씀이 한 가지 일에 10년을 종사하면 주위 사람들과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고, 20년을 열심히 하면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3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일에 몰입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내 자녀도 '한 우물 파기'에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녀가 끈기와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끊임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보자.

오자유

oh.free@hanmail.net

Q&A

Q: 구약성경을 읽다보니 출애굽기 21장 24-25절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한 복수를 명령하셨나요?

A: 이러한 율법은 당한 만큼만 갚아주는 동상동해법(同傷同害法)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복수심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되로 받고 말로 갚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인간들은 본인이 당한 피해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주겠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 악한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복수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당한 것만큼만 갚으라고 복수의 한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칫 가해자가 피해자로 뒤바뀌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배려한 율법입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개인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위하여 공적으로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세월의 흐름 속에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개인적인 보복이나 분풀이를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잘못 적용되고 있는 율법을 바로잡기 위하여 마태복음 5장 39-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 가지게 하며..."라는 말씀으로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회생을 강조하셨고, 일흔 번의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약한자는 절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용서다

누가누가 열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